



민 승 기
천하제일사료 부장 양돈PM

금년도 양돈 사료산업 결산 및 내년도 전망

축산업계에서 2007년 올해의 화두를 말하라고 하면 단연코 에너지 원료의 부족과 급등 그리고 환경규제와 친환경 축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석 원료의 가격이 급등하고 초 고가를 유지하면서 대체 에너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식량 자원이 대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면서 그야말로 국제 곡물가격의 초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축산업계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곡물가격의 상승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다. 에너지 원료가 지금처럼 고가를 유지하고 전 세

계적으로 자연과 환경 보존에 대한 위기감과 관심이 지속되는 한 식량자원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생산 산업은 계속 성장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최대 곡물 생산국들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 규모를 전략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2008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곡물 부족과 계속적인 고가 행진을 예상 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우리나라 축산 및 양돈산업에도 큰 이슈가 많았다. 2007년 올해는 한·미 FTA 타결, 원료가격 급등 및 3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 인상, 역대 최고의 사육두수, 무항생제 축산물

표1. 사육두수 현황 및 전망

연도	사육두수, 두	농가수, 호	호당 사육두수
1991년	5,046,029	129,466	39
1995년	6,461,179	45,878	141
2000년	8,214,369	23,841	345
2005년	8,961,505	12,290	729
2006년	9,382,039	11,309	830
2007년 추정	9,400,000	10,200	922
2008년 예상	9,200,000	9,200	1,000
2012년 예상	8,800,000	7,100	1,239
2015년 예상	8,600,000	6,500	1,323

인증 개시, 양돈 농장 HACCP 인증, 돈육 시세 하락 등 3년 여간 호황을 누렸던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알리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7년 양돈산업을 마무리하고 성찰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한다. 2008년이 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 FTA 협정 타결을 시작으로 양돈산업의 주요 선진국들과 FTA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양돈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확실한 시기에 내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래 양돈산업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

1. 양돈 산업 현황 및 전망

1) 사육두수 및 사육 호수 동향 및 예측

사육두수는 전체 양돈산업의 규모를 좌지우지 하는 가장 큰 통계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성

장일로에 있던 양돈 사육두수는 2003년 9월 903만두를 정점으로 2005년 6월 878만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현재 946만두로 양돈산업 역사 이래 최고두수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2004년 이후 3년 여간의 양돈 호황으로 번식용 모돈 사용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불안심리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돈육 소비량 증가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국내산 돈육 공급량 증가, 돈육 수입량 급등으로 올 4/4분기 가격 하락이 예측되고, 내년에도 소폭 가격 하락이 예측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육두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008년에는 920만두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 양돈 사육두수가 860만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 호수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1,000두

표 2. 돈육 수급동향 및 전망

구 분	공 급 량 (천톤)			수 요 량 (천톤)		자급율 (%)	1인당 소비량 (kg)
	생산량	수입량	계	소비량	수출량		
1996년	691.8	41.4	737.6	696.9	36.9	99.3	15.40
2000년	714.4	95.9	835.3	779.9	16.2	91.6	16.56
2005년	701.5	173.6	899.8	838.5	14.7	83.7	17.82
2006년	677.4	210.6	934.6	874.7	12.2	77.4	18.11
2007년 추정	700.0	230.0	977.7	902.7	15.0	77.5	18.69
2008년 예상	693.0	205.5	958.5	893.5	15.0	77.0	18.50
2012년 예상	665.4	301.4	1,016.8	941.8	25.0	68.0	19.50
2015년 예상	652.9	338.1	1,040.9	965.9	25.0	65.0	20.00

송년특집① : 축종별 사료산업 결산 및 전망

이상 소규모 농가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에는 10,000호 이하가 되고 2015년에는 6,000호 정도만이 양돈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당 사육두수 또한 전업화 규모화로 인해 2008년에는 호당 평균 1,000두 규모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호당 1,300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돈육수급 동향 및 전망

2006년은 번식용 모돈의 증가와 함께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국내산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축두수가 증가하여 2006년 도축두수 1,300만두 대비 약 6%가 증가한 1,380만두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며, 2008년에도 비슷한 도축두수가 예상된다.

돈육 수입량 또한 2006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230,000톤 수입이 예상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공급량의 증가와 수입 돈육의 증가 등으로 2007년 국민 1인당 돈육 소비량 또한 2006년 18.1kg 보다 크게 증가한 약 18.7kg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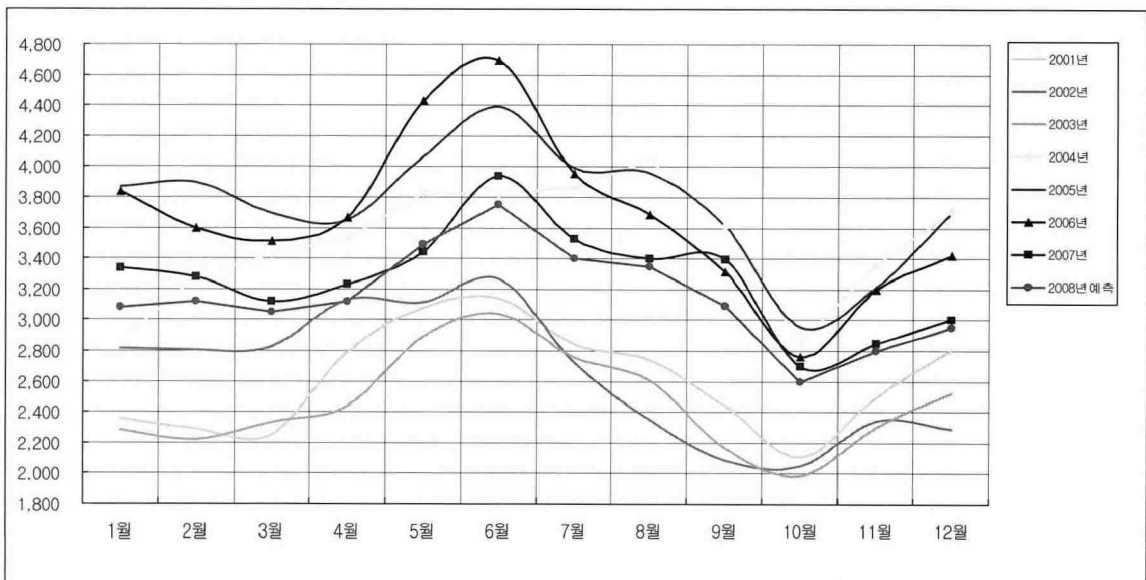
2008년에는 빠있는 미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돈육 소비가 일부 값 싼 수입 쇠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돈육 소비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돈육 소비량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폭의 증가 없이 2015년에는 1인당 돈육 소비량이 20kg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참조)

3) 돈육(지육) 시세

2007년은 돈육 소비량이 4%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돈육 공급량의 증가와 수

표 3. 돼지 월별 지육 가격 현황 및 전망

단위: 원/지육kg



입돈육의 증가로 3년 여간 호황을 누렸던 지육 시세가 2006년 대비 약 11% 하락한 약 3,250 원/지육kg으로 추정된다.

2008년은 국내산 공급량 및 돈육 수입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산 수입 쇠고기의 돈육 대체소비로 인해 소비량이 감소하여 수요 대비 공급량이 소폭 과잉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돈육(지육) 시세 또한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조는 2009년까지 계속되어 약 2년

여간의 불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국내산 공급량의 감소로 가격 또한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2015년에는 3,300원 ~ 3,400원/지육kg의 가격은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4 참조)

2.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2007년은 배합사료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판단 능력이 필요했던 한 해였고, 그 결과가 아직 끝

표 4. 돈육 가격 장기 전망

단위: 원/지육kg

연 도	상반기 평균	하반기 평균	연간 평균
2000년	2,881	2,192	2,536
2005년	3,927	3,572	3,750
2006년	3,956	3,391	3,674
2007년 추정	3,391	3,146	3,268
2008년 예상	3,310	2,990	3,150
2012년 예상	3,360	3,040	3,200
2015년 예상	3,570	3,230	3,400

표 5.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량 현황 및 예측

연 도	생 산 량	
	톤수(천톤)	전년대비(%)
2001년	5,548	106.4%
2002년	5,926	106.8%
2003년	5,654	95.4%
2004년	5,419	95.8%
2005년	5,170	95.4%
2006년	5,171	100.0%
2007년 추정	5,387	104.2%
2008년 예상	5,350	99.3%
2012년 예상	5,117	100.0%
2015년 예상	5,001	100.0%

나지 않는 진행형이다.

2008년 또한 험난한 파도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파도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유지류 등의 에너지 원료의 급등은 대두박 및 박류와 강피류의 동반상승 결과를 만들고 있고, 유제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등하였다.

대체 에너지 생산량의 증가와 환경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원료 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생산량도 증가하고 재고량도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용 원료 부족현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소맥은 유럽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옥수수 대체 가치가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대두박이 원료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 상승폭이 매우 크며 2008년 배합사료 원료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현황 및 전망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2006년 감소를 멈추고 올해는 전년보다 약 4%이상 증가한 약 540만톤이 예상되나 2008년부터는 다시 사육두수가 감소하면

서 배합사료 생산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1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 참조)

어떤 산업이던 성장기와 정체기, 쇠퇴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축산 및 양돈산업에 대해 정체기 또는 쇠퇴기 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좀 더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돈육을 생산 수출하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 EU등 선진국들이 최고의 생산성 및 최저의 생산비라는 경쟁력으로 돈육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양돈산업은 분명 자본/인력 집약적인 선진국형 산업임이 분명하고, 생산성 및 생산비라는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좀 더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이겨내면 좀 더 단련되고 세련된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한 번 해볼만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양돈산업이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양돈 농가와 관련 기관 및 업체가 한 곳을 보고 한 걸음씩 힘찬 발걸음을 하는 2008년을 꿈꾸어 본다. 